

오늘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같이 은혜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라는 말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 것 처럼, 돈의 단위입니다. 텔레비 드라마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을 탈렌트라고 하지요. 원래는 성경시대에 로마의 화폐였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시작되어 영어의 탈렌트(talent)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말긴 물건, 은사, 능력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부터 특별한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든가 재능을 발휘해서 활약하는 사람들을 탈렌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때에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1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보통 1 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에 상당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1 달란트는 어른이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따라서, 5 달란트를 벌려면 약 100년을 일해야 하고, 2 달란트를 벌려하면 약 40년을 일해야 할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평생동안 땀흘려 일해서 받는 금액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수명이 각각 달라서,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40년, 또 어떤 사람은 20년을 사는 것과도 같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말씀은, 우리들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고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교육, 지식, 건강, 체력, 시간, 사회적 입장, 금전,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는 믿음과 사랑」. 이러한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우리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는 우리들에게 주신 위탁물, 그리고 은사를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일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오직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청지기로서의 책임이란, 하나님께 받은 탈란트, 즉 맡겨진 위탁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한 이웃의 축복을 위해서 사용해야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주인이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5 탈란트를 받은 종과, 2 탈란트를 받은 종 그리고 1 탈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이 돌아와 회계할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주인이 그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어떠한 상을 주었는가를 말씀합니다.

5탈란트와 2탈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각각 그것을 사용해서 장사를 하고, 주인이 돌아 왔을 때에, 그것에 두 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돌아 온 주인은, 이 두 사람의 종들에게, 같은 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1 탈란트를 받은 종은, 땅을 깊게 파서, 거기에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꾸중을 하시고, 그 1 탈란트를 빼앗아 다른 종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받은 은사의 크기, 그것이 크든 작든, 많은 적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 탈란트건 2 탈란트건 1 탈란트건,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활용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5탈란트를 받은 사람은 5탈란트를 남겼고, 2 탈란트를 받은 사람은 2 탈란트를 얻었습니다. 둘 다, 처음에 받은 것에 두 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만, 주인은 그들이 소유하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비교한 것이 아니고, 누가 더 잘했는가를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종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은 보시지 않고, 같은 말로, 그들이 같이 열심히 일한 것에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 : 22) .

조금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어진 위탁물, 은사를 잘 관리할 책임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의 축복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책임은 영어로 responsibility 라는 말이지만, 이것은 「응답하다」 (response)라는 말과 친근성이 있는 동시에, 「신뢰하다」 (trust, *Oxford English Dic.*)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책임이라는 것은, 신뢰관계에 있어서만 성립이 되는 말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긴 것은, 그들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들이 주인의 신뢰에, 책임을 갖고 응답하고, 신뢰에 맞는 행동을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5 달란트를 남긴 종도, 2 달란트 남긴 종도, 주인으로부터 신뢰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인과 종과의 참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잘 활용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신경쓰지 않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자기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과시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성실하게 착실히 사용해서 주님께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들 중에 가장 큰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생애를 통해서, 이 은사위에 살 수가 있습니다.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